



프랑스 리옹의 정거장에서 노면전차에 오르는 승객.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하천 다리를 지나는 노면전차. 고풍스러운 도시 분위기와 현대적인 노면전차의 외관 디자인이 절묘하게 어울린다.



노면전차, 자가용, 버스, 자전거, 보행자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중심 시가지.



마치 숲길을 운행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하는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노면전차.

프랑스 리옹은 수송인원이 많은 노면전차에서 노면버스에 이르기까지 유럽 도시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노면전차를 운영하고 있다.

도로위 달리는 기차, 도심 표정을 바꾸다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17>

유럽편 '도시와 노면전차'



신뜻한 디자인의 프랑스 리옹의 노면전차 내부.

유럽의 도시들이 노면전차(tram)를 핵심적인 도시교통수단으로 하는 이유는 ▲저비용 고효율 운송 가능 ▲자동차 운행 절감 유도 ▲매연에 의한 도시 공해 방지 ▲화석에너지 소비 감소 ▲도시 디자인 제고 등이 있다. 다만 ▲기존 교통시스템의 전면 개편 ▲지하철에 비해 낮은 속도 및 복잡한 전선 등이 불가피하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일부 유럽 도시들은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노면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며 운영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 도시의 노면전차는 자동차의 성장세가 완연했던 1900년 초반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다가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가 한계를 보인 1900년대 후반 복원돼 2000년대 급성장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더 이상 자동차의 증가를 도로가 소화할 수 없고, 화석에너지의 매연으로 인한 공해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증가하는 도시 간 이동 수요를 버스가 감당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대안으로 지하철이 있지만 이는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고 노선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으로 대부분의 도시 지자체가 꺼리고 있다.

노면전차는 근본적으로 그동안 자동차가 점령했던 도로 중앙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행속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교통시스템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여전히 자동차의 운행속도 향상이 도로를 관리·운영하는 기관의 주된 의무가 되고, 교통 지·정체에 너무도 민감한 운전자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다소 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 2호선 건립을 추진중인 광주시는 좀 더 이른 시점의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의 문제를

도로 중앙 점유... 승용차 줄여 환경·보행자 친화적
구도심 부흥·미관 개선 등 효과... 유럽 제도입 확산
정체 민감 국내 도입 쉽지 않지만 '앞선 선택' 필요

해결하는 '앞선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 덴 하그의 출근길 도로는 직장인들의 자전거 행렬과 노면전차가 어우러진다. 노면전차의 수송분담률은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약 500m 단위로 정거장이 있어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보도와 트램, 차도가 교차할 때 사고 위험성도 있지만 도보자-자전거-노면전차-자동차의 순으로 진행하는 원칙과 다양한 높이의 교통신호등이 이들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이끌고 있다. 역이 필요 없이 정거장만 설치하면 되고 간선 노면전차의 경우 바닥을 녹지로 꾸미고 주변에 가로수를 심어 사실상 도시 공원처럼 꾸며졌다. 표는 슈퍼마켓에서도 구입 가능하며 8번 탈 수 있는 표가 7유로(한화 1만1900원) 정도다. 5~15분 간격으로 정차하고 속도는 30~50km, 자정까지 운행하고 있다.

프랑스 리옹은 그 어느 도시보다 노면전차 종류가 다양하다. 노면전차, 노면버스(전기에너지)에 지향할도 있다.

1인당 4.8유로(한화 7500원)를 내면 하루종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대로 이상 폭 7m 이상 확보 가능한 곳에는 간선, 나머지는 지선이다. 간선은 5량 정도로 높은 수송능력이 뛰어나고 지선은 2~3량의 굴절노면버스와 1량의 노면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는 1912년 사라졌던 노면전차를 1991년에서야 다시 재생했으며 도로 중심부 폭 6m 정도의 차지하며 도시 곳곳에 뻗어있다. 곡선 굴절도 무리 없이 운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자인으로 마치 도시의 예술품처럼 인식되고 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도 1950년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리빌딩하면서 1920년대의 노면전차 라인을 복원해 그린벨트와 역은 5개의 노선을 주축으로 주거지를 배치했다. 노면전차 노선 중 88%가 수익을 내고 있다.

/글·사진=윤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

백두산악

광주의 자존심 백두산악에서 선택의 폭이 넓은 등산리류, 장비, 오토 캠핑까지 전품목을 할인해 드립니다!!

구매 고객님께 사은품을 증정해드립니다

할인 행사점

백두산악 증심사점 T.236-1187
 광주아울렛점 T.267-2562
 서방사거리 밀레 T.266-8848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062)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061)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 454-7722